

사흘간 7만 여명 입장...경마장에 웃음꽃

약 2년 만에 유관중 레이스 진행
7일 서울경마장 코리안더비 열려
위너스맨, 히트예감에 코차 우승
7000여 팬들 직관하며 함성 응원



코리안더비에서 부경의 위너스맨과 최시대 기수(왼쪽 분홍색 기수모의 8번마)가 'KRA컵 마일' 우승마인 히트예감을 간발의 차로 제치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7일 서울경마공원은 약 2년 만에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이날 최고의 국산 3세마를 뽑는 대상 경주인 '제24회 코리안더비'(G,1800m)가 열렸고, 우승트로피는 부경의 위너스맨(수, 3세, 국산, R84, 이정희 마주, 최기홍 조교사)이 가져갔다. 이번 경주는 이전 경주인 'KRA컵 마일'(GⅡ,1600m)의 우승마인 히트예감과 불과 코차(0.1~21cm 정도 차이)로 승패가 갈린 치열한 접전이었다. 경주기록은 1분 55초2다.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5일부터 서울경마공원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에 고개 입장을 재개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실내취식 금지 등 안전한 방역체계 하에 3일 간 약 7만 명이 전국사업장을 찾았다.

이로써 2020년 2월 이후 무관중으로 레이스를 진행해온 서울경마공원은 모처럼 객석에 경마팬이 가득 찬 가운데 레이스를 진행했다. 예시장에서는 기수를 부르는 반가는 목소리가 들렸고, 경주마 관계자들과 경마팬들은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요일 서울경마공원에는 7000여 명

의 관중이 입장해 '코리안더비'에 출전한 경주마를 응원했다. 이날 경주 초반 주도권은 히트예감이 잡았다. 선행마인 히트예감은 이번에도 빠르게 맨 앞에 자리를 잡아 여유있게 경주를 이끌었다.

위너스맨은 히트예감을 약 3마신 뒤에서 쫓았다. 직선주목에 들어서면서 모든 경주마들이 마지막 힘을 발휘하며 전력질주에 나섰다. 서울의 흥바라기가 히트예감을 바짝 쫓으며 잠시 선두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결승선 50m를 앞두고 히트예감과 위너스맨이 발군의 추진력을 발휘하며 질주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승부 끝

에 위너스맨이 간발의 차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위너스맨과 호흡을 맞춘 최시대 기수는 "기량이 좋은 말이고, 첫 서울 원정임에도 잘 적응했다. 마지막까지 위너스맨이 끈기 있게 뛰어준 덕에 우승했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위너스맨과 함께 첫 그레이드급 대상 경주를 우승한 최기홍 조교사는 "1800m 경향이 있어 거리적응이 이미 된 상태에서 말 컨디션이 워낙 좋았고, 투입작전도 유효했다"고 평하며, "모처럼 경마팬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함께 한 20조 식구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트리

플클라운 시리즈의 마지막 경주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GⅡ,2000m)도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코리안더비'는 국산 3세 최우수마를 발굴하는 '트리플클라운' 시리즈의 두 번째 관문인 대상경주다. 첫 관문 'KRA컵마일' 우승마인 히트예감이 준우승에 머물며 올해도 삼관마는 탄생하지 않았다. 트리플클라운 시리즈의 최우수 경주마는 현재 시리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히트예감과 위너스맨, 그리고 꾸준히 입상을 하고 있는 서울 경마공원의 흥바라기 등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마사회, 양성평등 맞춤형 교육 실시

한국마사회는 다양한 직급과 계층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양성평등적 조직문화 정립에 나섰다.

먼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의 서울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한 '자라다'(자아성장 라이프 다 이루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자라다 그룹코칭'을 도입한다.

기존의 일방적인 리더십 교육에서 벗어나 여성 직원들의 경력관리 고충과 고민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쌍방향 맞춤 코칭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자라다 그룹코칭은 경력관리,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소모임을 구성해 전문가의 그룹 코칭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코칭 주제는 자기관리, 자기개발,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등 5개 분야다. 프로그램은 MBTI(성격유형검사)를 기반으로 한 사전진단 후 온·오프라인 채널로 진행한다.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판단해 내년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장 내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자 교육도 실시된다. 한국마사회는 상호존중의 날(11월 11일)을 맞아 부장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양성평등 교육을 시행했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소통공간으로 급부상한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활용해 임직원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강의실에 입장하면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 직무대행은 "자라다 그룹코칭과 메타버스 교육 등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원들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불법경마 신고, 'AI 챗봇·카톡' 오픈

한국마사회가 채팅기반의 불법경마 신고 채널과 AI 챗봇 서비스를 오픈했다. 전화(080-8282-112)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외에 앞으로는 카카오톡에서 '불법경마'를 검색해 불법경마신고 채널로 신고할 수 있다. 챗봇은 신고접수를 비롯해 신고포상금제도, 불법경마 등에 대한 문의를 24시간 응대한다. 보다 복잡한 문의 등은 상담원 채팅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마사회는 신고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새 경마·말산업 정보시스템 문 열어

한국마사회는 차세대 경마·말산업 정보시스템 '케이호스넷'과 말산업 정보포털 '호스피아'를 오픈했다. 마사회는 케이호스넷 시스템을 통해 경주마는 물론 승용마, 제주마 등 다양한 말이력을 통합관리한다. 케이호스넷은 서울·부경·제주 경마장별 정보를 통합하고 향후 영천경마장, 화옹호스파크까지 관리하게 된다. 호스피아는 말산업 관계자 업무지원 및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해 기존 기능에 각기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던 말혈통, 경주마정보, 생산육성업무 등을 통합했다.

"마사회형 ESG 경영 통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

한국마사회 'ESG 경영 선포식'
친환경 경마공원 조성 등 다짐
ESG위원회 등 전담조직 신설

한국마사회는 11일 과천 본사 대회의실에서 'ESG 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서 송철희 회장 직무대행은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마사회형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 기업 사이에서 화두인 ESG 경영은 재무 중시의 경영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기업이 좋은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탕으로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에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경주 중단으로 발생한 적자 때문에 올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윤리경영 확립

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해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 아래 ESG 경영계획을 수립했다.

한국마사회의 ESG 경영은 3대 경영목표와 15개 전략과제를 담고 있다. 친환경 경마공원 조성(전략과제 3개), 사회적 책임경영 선도(전략과제 7개), 공정·투명한 기관 운영(전략과제 5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동물복지 관점의 말 문화 조성,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체계, 경마관계자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투명·공정성 제고 노력 등 건전한 경마사업 발



11일 진행된 한국마사회 'ESG 경영 선포식'에 참여한 송철희 마사회 회장 직무대행(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임원진들.

전을 위한 추진과제를 포함하는 등 마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 체계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는 이사회에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김재범 기자

골프

KLPGA 시즌 최종전 개막...마지막 한판에 그녀의 운명이 바뀐다

(SK실터스-SK텔레콤 챔피언십)

박민지-임희정 "대상 주인공은 나"
송가은·홍정민, 신인왕 놓고 경쟁
장하나, 생애 첫 평균타수상 노려
시즌 무승 최혜진 트로피 들 기회

누가 마지막에 웃을 것인가.

2021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최종전 'SK실터스-SK텔레콤 챔피언십 2021'(총상금 10억 원·우승상금 2억 원)이 12일부터 사흘간 강원 춘천시에 있는 라비에벨 CC(파72)에서 펼쳐진다.

시즌 최종전을 뜨겁게 달굴 가장 큰 관심거리는 대상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다. 대상 1위 박민지(26)와 2위 임희정(21)의 포인트 차는 62점.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70포인트, 준우승을 하면 52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임희정이 대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승을 해야만 한다.

임희정이 우승을 하더라도 박민지가 톱 10에 진입하면 최소 41포인트 이상을 획득하면서 박민지가 대상을 가져가게 된다. 6승과 함께 KLPGA 투어 최초로 시즌 상금 15억 원을 돌파하며 일찌감치 상금왕과 다승왕을 조기 확정할 박민지가 대상까지 거머쥐었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천하통일'을 이루게 된다.

신인왕도 이번 대회에서 가려진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올 시즌 유일한 루키 우승을 일궈낸 송가은(21)이 2055포인트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그 뒤를 홍정민(19·2021점)이 34포인트 차로 뒤쫓고 있다. 차이가 크지 않아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뒤집힐 수 있어 생애 단 한번뿐인 신인왕을 놓고 펼치는 두 루키의 자존심 싸움 결과에 눈길이 모아진다.

장하나(29)가 생애 처음으로 평균타수상

을 수상할 수 있을지도 관련 포인트다. 장나는 지난 시즌을 포함해 지금까지 4차례(2013, 2014, 2019, 2020년) 평균타수 2위를 기록했으나 한번도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최종라운드 성적 기준으로 장하나가 이번파를 기록한다면 이 부문 2위인 이다연(24)이 9언더파, 3위인 임희정이 10언더파 이상의 성적을 내야 순위를 뒤집을 수 있다. 만약 장하나가 5언더파를 친다면 이다연이 13언더파, 임희정이 16언더파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시즌 무승 위기에 처한 '통산 10승' 최혜진(22)이 지난해처럼 마지막 대회에서 웃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아마추어 시절이던 2017년부터 매년 우승 행진을 이어온 최혜진은 지난해에도 지독한 우승 갈증에 시달리다 마지막 대회였던 이 대회에서 감격적인 시즌 첫 승을 거두며 3년 연속 대상 수상을 자축하기도 했다.



2021시즌 KLPGA 투어 최종전 SK실터스-SK텔레콤 챔피언십이 12일 라비에벨CC에서 개막한다. 11일 열린 공식 포토큐에서 최혜진 박민지 장하나 임희정 홍정민 송가은(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도 27개 대회에서 톱10에 11번 이름을 올리고도 한 번도 정상을 밟지 못했던 최혜진은 뒤늦은 시즌 첫 승과 함께 생애 첫 타이틀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지난해 우

승했던 좋은 기억이 있는 대회이고, 코스도 나와 잘 맞는다. 시즌 마지막 대회인 만큼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게 최혜진의 각오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